

한 지붕 세 가족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며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어마전 어느 신문에 “아 정말 살 맛 안나네” 하는 독자의 소리가 실린 적이 있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이 서민의 전세값에 해당하는 2천5백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선물로 주고 받았다는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다.

서민들은 아이들의 옷을 살 때 세일 기간을 골라 5천원 짜리 옷을 사는데도 꼼꼼이 고르고 심사숙고 해서 구입하는데, 옷 한 벌에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을 척척 사입는다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번 돈, 땀흘리지 않고 번 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도지사 부인이 몇 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해서 구속되어 법정에서 서는데, 일반적으로 개같이 벌여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없어져야 하고,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는 속담을 마치 적당한 부정을 필요악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짓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치부와 사치, 향락을 위한 범죄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통하니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의사회 구현이 늘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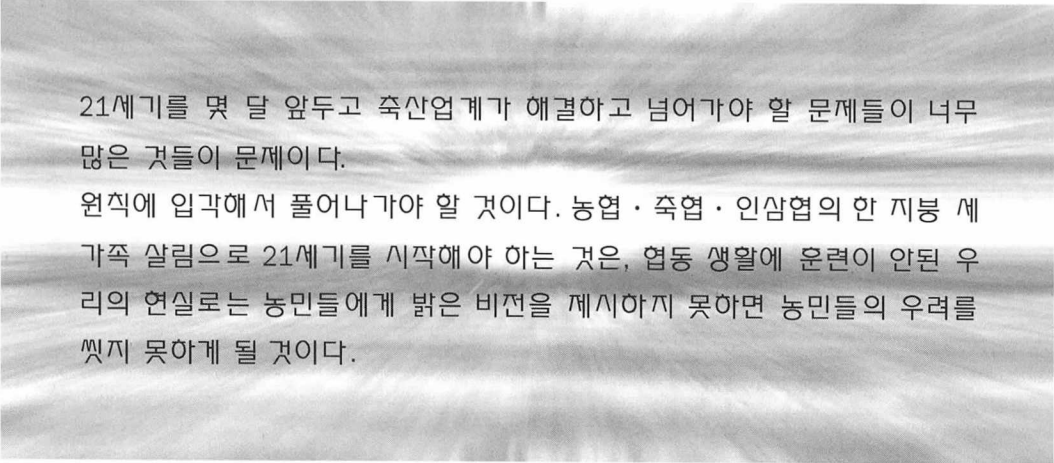
AD 50여년경 이스라엘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본 사람이면 느끼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을 제외하면 돌덩어리 천지인 소위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들이다. 배고픈 그들은 저 많은 돌들이 떡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저 돌덩이들로 떡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죽 배가 고프면 이러한 유혹을 받았을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굶주렸을때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우리도 어려서 가난하게 자랄때 도깨비방망이가 하나 있어 돈 나와라 딱딱 하면 돈이 쏟아지고 집 나와라 딱딱 하면 기와집이 나오고 하는 상상들을 하며 자라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21세기를 몇 달 앞두고 축산업계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이다.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축협·인삼협의 한 지붕 세 가족 살림으로 21세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협동 생활에 훈련이 안된 우리의 현실로는 농민들에게 밝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우려를 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옳은가 하는 진리, 정의, 편법이 아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농·축협과 인삼조합이 내년 7월 1일부터 통합이 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축협의 신규법 회장이 할복으로 이를 저지하는 등 지난 한 주는 축산업계에 우울한 일들이 있었다.

그간 협동조합이 경제사업보다는 돈장사에만 눈이 어두워 돈장사로 중앙회가 비대해졌다고 비난하면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더 연구하기로 하였다.

상호금융 업무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지만, 돈장사로 쉽게 돈을 벌어 경제사업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키워놓은 금융업무를 신용사업을 분리해서 별도의 은행을 만들면 금융부서만 좋아지니 죽 썬서 개 좋은 일한다는 논리로 신용사업의 분리에 반대하는 글을 보았다. 손쉽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 돌 많은 곳으로 사람이 몰리고,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기 보다는 돌로 더 많은 떡을 만들 궁리만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경제사업은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략하게 되며 신용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대기업·대자본과 경쟁할 힘을 잃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협동조합은 없어지고 은행만 남게 된다. 더군다나 같은 축산이라도 소 기르는 사람이 닭 기르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같은 닭을 길러도 채란계 기르는 농가가 브로일러 가격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에서, 다양한 업종이 한 지붕 여러 가족을 이루고 살때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겠다.

극한적인 반목상태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지금 부터는 냉정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1세기가 대통령의 8·15 경축사로 2001년이 아닌 2000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공식확정이 되었다.

21세기를 몇 달 앞두고 축산업계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이다.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축협·인삼협의 한 지붕 세 가족 살림으로 21세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협동 생활에 훈련이 안된 우리의 현실로는 농민들에게 밝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농민들의 우려를 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양돈**